

“ ‘첼로스퀘어’와 ‘아이노마드’가 만난다”... 우정항공 ·삼성 SDS 상생협력 MOU

카고프레스최종 : 2022.06.09 11:39



삼성SDS는 글로벌 항공 물류사업 확대와 국내 중소 물류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우정항공과 사업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실상 삼성SDS의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 스퀘어(Cello Square) 플랫폼에 우정항공의 항공물류 플랫폼인 아이노마드(i Nomad)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 스퀘어(Cello Square) 플랫폼에 우정항공의 항공화물 실시간 위치와 운임 정보 등 항공물류에 특화된 우정항공의 서비스를 결합한다”고 전하면서, 향후에도 중국 물류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물류 사업 확대를 위해 우정항공과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S 첼로 스퀘어(Cello Square) 이용 고객들은 아이노마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항공화물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시장 운임 정보를 비롯해, 항공사 및 BSA 계약을 통한 항공화물 스페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예약과 화물 추적 기능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물입고- 공항화물처리- 항공기선적- 공항화물도착- 도착지화물입고 등 항공물류 운송 전 과정을 집적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SDS는 우정항공과 함께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의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등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국제 항공물류 상품도 공동 개발해 우정항공의 해외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이노마드는 최근 홍콩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타 국가로의 진출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우정항공은 인천공항내 자가 화물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 인천공항공사와 2번째 창고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완공시 해당 항공화물 창고는 아이노마드 전용 창고로 활용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삼성SDS 오구일 물류사업부장(부사장)은 “급변하는 항공물류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특화된 역량을 가진 국내 중소 물류기업들과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서로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 카고프레스]

(주) 우정항공

서울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나눔빌딩)
TEL : 02-3275-1321 / FAX : 02-3275-1327
woojung@woojungair.co.kr
www.woojungair.co.kr

